

개인의 정보에 대한 소유감이 정보공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준용*, 신민수**

*한양대학교 정보기술경영학, **한양대학교 정보기술경영학

The Research of Information Ownership and Effects for Information Sharing

Park Joon Yong*, Shin Min Soo**

Hanyang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E-mail: madcat77@naver.com, minsooshin@hanyang.ac.kr

요 약

정보 공유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유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유하고자 하는 의식의 부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식은 개개인이 정보에 대해 가지는 소유감에 있다고 본다. 정보 공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소유감의 구성 요소와 소유감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정보 소유감이 정보를 주고 받는 환경과 대상의 어떠한 측면에 영향을 받고, 정보 공유를 통한 업무 성과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본다.

1. 서론

21세기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부를 산출하는 국가의 주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중심 사회에서는 권력이 자본 소유자보다는 지식 소유자에게 있으며, 기업의 부가가치는 토지, 자본, 노동과 같은 전통적 생산요소보다는 정보와 지식이라는 새로운 요소로부터 창출된다.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정보 유통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등장하고 결정적인 경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커짐에 따라서 정보공유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웹 블로그 형태의 개인 미디어의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서 미니홈피, 블로그, 웹하드, 등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전달이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 조직 등은 웹 상에서만 아니라 일반생활에서도 정보와 지식의 교환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습득한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식사회는 매우 복잡다단하여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므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사회 및 조직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회 및 조직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의 제공이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이다.

현재까지 정보, 지식 공유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조직간, 조직 내 그리고 조직 내의 개인 차원에서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성공적인 지식공유를 위한 요인으로 여러 요인들을 다루고 있지만 공유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방법, 개개인이 자신의 가진 정보에 대한 소유감등은 연구가 되지 않은 실정이다.

정보 공유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유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공유하고자 하는 의식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보 공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소유감의 구성 요소와 소유감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또한 정보 소유감이 정보를 주고 받는 환경과 대상의 어떠한 측면에 영향을 받고, 정보 공유를 통한 업무 성과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석한다.

2. 본론

2.1 지식과 정보

지식은 다면적인 개념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 의해 정의 되어 왔다. 지식의 개념을 자료 및

정보와의 계층론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지식의 상대적 고차원성을 강조한다. 즉, 자료는 가공되지 않은 숫자나 사실이며, 이러한 데이터가 가공, 분석, 처리 (processed/interpreted)되면 정보가 되고, 지식은 행동 가능하게 만들어진 정보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설명,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시함으로써 이들간의 개념적 차이를 규정하고 있다. Zack(1999)은 데이터를 관찰 혹은 사실로 정의하고 정보를 의미 있는 상황에서의 데이터로 정의하며, 정보가 의미 있게 조직화되고 축적되는 것을 지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Nolan(1996)에 의하면 사건의 관찰을 통해 자료(data)가 생성되고, 이를 분석해서 정보가 되며 많은 정보들은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 지식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Harris(1996)는 계층론적 관점에서 지식은 정보와 상황 그리고 경험이 조합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논리를 정리해서 본 연구에서 정보 소유감에서의 정보란 데이터뿐만 아니라 상황과 경험이 조합된 지식이라는 의미까지 확장하여 본다.

2.2 지식 공유

지식공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지식공유에 대한 개념 역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지식공유의 개념을 보면, 지식공유를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Nelson & Coopridge, 1996; Szulanski, 1996; Hansen, 1999), 지식에 대한 접근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Chakravarthy et al., 1999; 최병석, 이희석, 1999; 조진현 외, 2002), 지식의 이전 및 교환을 강조하는 관점(Ruggles, 1998; Bock & Kim, 2002; 이향수, 2005; 최호진, 2005)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홍재, 차용진, 2006).

먼저 지식공유를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Nelson & Coopridner(1996)는 지식공유를 집단성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상호간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Szulanski(1996)는 전수부서와 수혜부서간의 조직 내 지식의 상호교환과정으로, 그리고 Hansen(1999)은 타 부서 사람들과의 견고한 상호관계(네트워크 연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식공유를 지식에 대한 접근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 Chakravarthy et al.(1999)은 지식공유를 조직 내 한 부서(unit)가 타 부서의 특출한 역량이 되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최병석, 이희석(1999)과 조진현 외(2002) 역시 지식공유를 기술적, 조직적 기반을 제공하여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까지의 제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지식공유를 지식의 이전 및 교환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Bock & Kim(2002)은 지식공유를 조직 내에서 개인 간 지식의 이전 또는 배포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Ruggles(1998: 81)와 이향수(2005:276)는 개인 또는 조직의 지식을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호진(2005: 174) 역시 조직의 한 부분이 확보한 지식을 다른 부분으로 전파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지식공유에 관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지식공유란 인적, 기술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신의 지식을 다른 조직구성원과 기꺼이 교환하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2.3 정보 소유감(information ownership)

소유를 심리학적으로 정의 하면, 특정한 대상에 향한 '나의 것이다.' 라는 소유감을 말하고, 대상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어 확장된 자아의 일부가 된다. 또한 소유의 대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 생각 등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와 지식 등에

대해서 느끼는 소유감에 대해서 정보 소유감이라고 정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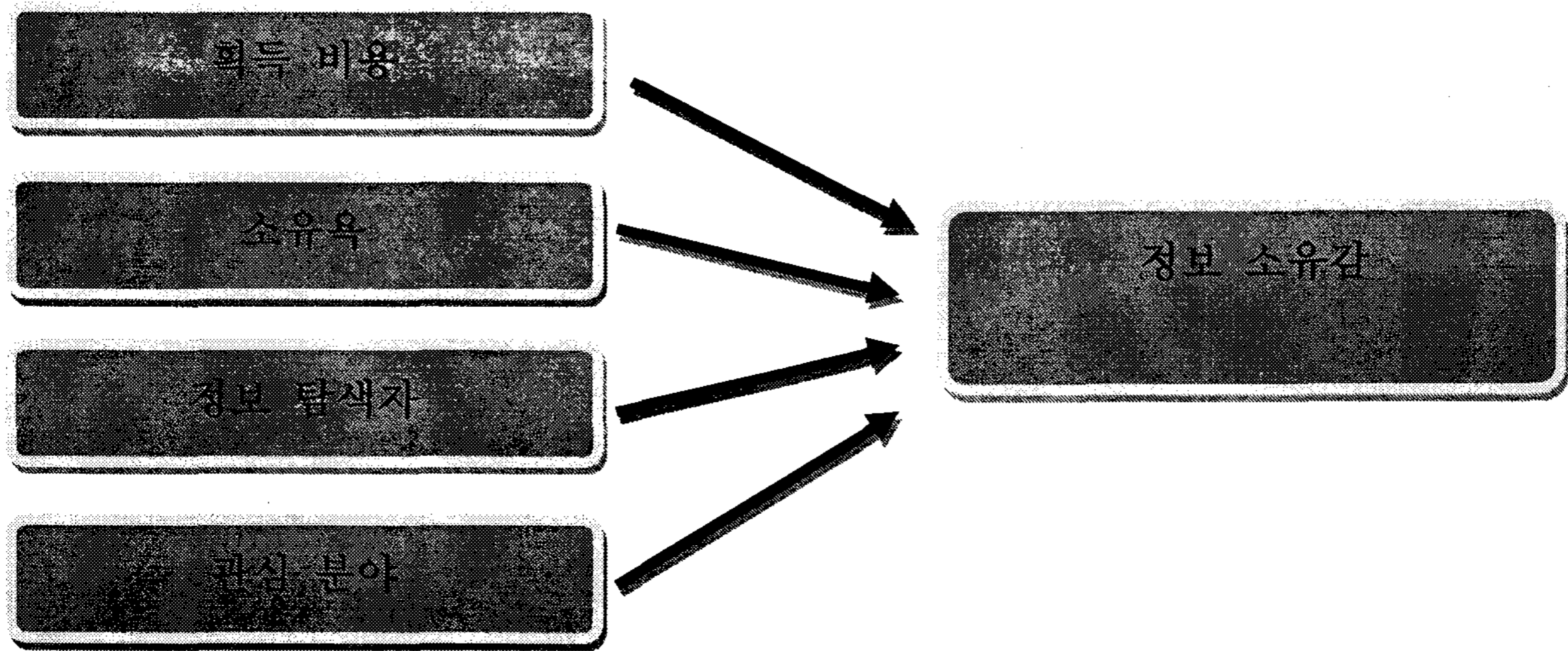
정보 소유감이란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 절대적인 정보, 지식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역에서도 자신이 특별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정보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에 대한 느낌이다.

정보 소유감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노하우, 조용하고 한적한 낚시터, 자신만의 독특한 분재 방법 등에서 볼 수 있는 금전적 가치는 없지만 타인이 모르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소유감등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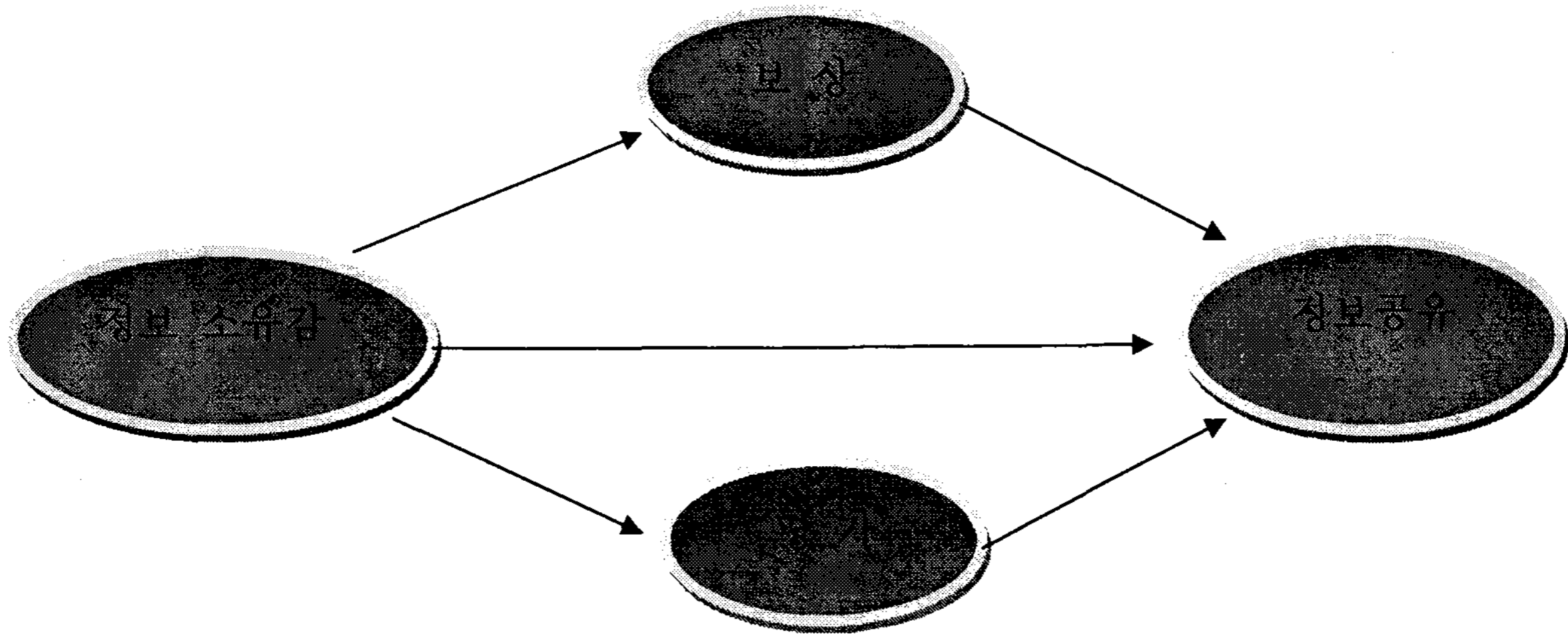
2.4 사회적 교환 이론

Constant 등은 개인들은 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려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상호의존 이론(interdependence theory)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 이론은 사회적 교환 이론(social exchange theory)으로도 불린다. 사회적 교환 이론은 개인들 간의 정보공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형성한다.

Blau에 의하면 상호의존 이론에서는 개인들이 무형(intangible)의 비용 대비 이득(benefic/cost) 차원의 경제적/사회적 교환 관점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회적 교환 관점에서 개인들은 존경심, 명예심, 우정, 책임감 등과 같은 무형의 이득과 보상에 대한 지각으로 인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형의 이득들로 인해 개인들은 명시적 규범과 규칙에 의한 상호작용보다 자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려는 의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1>



<그림 2 연구 모형 2>

2.5 연구 모형

앞의 논의를 통해 지식과 지식 공유의 필요성을 살펴 보았고 정보 소유감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보았다.

개인이 가진 소유감에 대한 절대적인 척도는 불분명 하다. 예를 들어 A가 생각하기에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서 소유감이 드는 정보를 B가 원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는 A가 가진 정보에 대한 소유감의 정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B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정보 소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간의 관계를 보이하고자 <그림 1> 과 같은 연

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가) 획득 비용

획득 비용(Acquisition Cost)은 대상을 획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금전, 시간, 노력 등)을 말한다. 지식을 획득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면 지식을 얻는데 소유감과 성취감이 높아져 그만큼 개인은 소유한 지식에 대한 소유감이 높아질 것이다.

(나) 소유욕

소유욕은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본능의 하나로써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라고

정의 된다. 보통 소유욕은 물건 같은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정보와 지식의 경우에도 인간의 소유욕은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다) 정보 탐색자

정보 탐색자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개인들을 말한다. 정보 탐색자의 수에 따라서 정보 소유자들이 가지는 소유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 관심 분야

정보 소유자가 느끼는 소유감은 자신의 관심 분야일수록 커질 것이다. 소유감의 크기란 지극히 개인적인 척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닌 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소유감이 큰 정보라고 할지라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마) 보상과 평가

조직 내 효과적인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와 공정한 보상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Davenport et al, 1998; O'Dell & Grayson, 1998; 박문수, 문형구, 2001; 한세익, 2001). 지식에 기초한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지식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지식공유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Marshall et al, 1996).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보 공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소유감의 구성 요소와 소유감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정보 소유감이 정보를 주고 받는 환경과 대상의 어떠한 측면에 영향을 받고, 정보 공유를 통한 업무 성과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활발한 정보공유와 교환이 이루어 지는 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지식 기반사회와

지식경영을 위한 기업문화 형성 전략수립에 공헌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김성희. 1999. “지식관리시스템의 단계별 분석 및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제 16권, 제2호. pp. 165-182.

[2] 채서일, “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제3판”, 학현사, 2003

[3] Nonaka, I. “Knowledge-Creating Company”, HBR, 69 Nov-Dec, pp.96~104

[4] 강여진. (2005). 지식공유 영향요인이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17(2): 432 ~ 458.

[5] 김경규.김범수.송세정.신호경. (2005). 지식공유 의도와 지식관리시스템이사용. 「경영정보학연구」, 15(3): 65 ~ 89.

[6] 김효근.성은숙.이현주. (2002). 조직구성원의 지식기여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이 지식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컨설팅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3(1): 75 ~ 92.

[7] 이홍재.권기현.차용진, “ 지식공유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평가, 보상, 지식품질, 지식공유의 인과관계 모형검증”, 「한국행정연구」 제15권 제2호(2006여름호), pp. 127~156

[8] Ronald C. Anderson; D. Scott Lee, “Ownership Studies: The Data Source Does Matter” *The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Vol. 32, No. 3. (Sep., 1997), pp. 311-329.

[9] Marshall Van Alstyne Erik Brynjolfsson Stuart E. Madnick, “ Why not One Big Database? Principles for Data Ownership”, 1992

[10]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11] Constant, D., Kiesler, S. and Sproull, L.,
"What's Mine is ours, or is it? A study of
Attitudes about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System Research, Vol.5,
No.4(1994), pp 400-421

[12] LINN VAN DYNE1* AND JON L. PIERCE2,
Psychological ownership and feelings of
possession: three field studies predicting
employee attitudes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J. Organiz. Behav. 25, 439-459
(2004)

[13] Jon L. Pierce; Tatiana Kostova; Kurt T.
Dirks, Toward a Theory of Psychological
Ownership in Organization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6, No. 2. (Apr.,
2001), pp. 298-310.

[14] Alavi, M. & Leidner, Dorothy E. (2001).
"Review: Knowledge Management
an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Conceptual Foundations and Research Issues",
MIS Quarterly, 25(1): 107 ~ 136.